

춤

이보게,

오늘 우리 가끔 갔었던 운정에 다녀왔네 자네의 포뿔빛 기타 소리가 그리웠네 우물 속 메아리는 이미 떠나가고 없었네

이보게 자네는 늘 춤을 추었네

그 시월에 자네는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 떨어진 신발로 나를 찾아왔네 굶아떨어진 자네 몸 여기저기 뭉개진 포도껍질이 다닥다닥 달라붙은 것을 보았네 나는 못 본 척했네 하필 그때 나는 시험 기간이었네

그 오월에 내가 있던 부대도 광주에 내려갈 거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작전상황판을 포도씨처럼 내달렸던 붉은 점들이 자네의 질주 경로일 거라고 생각했네 하필 그때 나는 지하병커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네

그 유월에 자네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과 포도송이처럼 뻑뻑하게 신촌 오거리를 채웠네 향기로운 과즙을 하늘 높이 날리고 있었네 자네 목소리는 인화성이 강했네 하필 그때 나는 빌딩 옥상에서 취재수첩을 들고 있었네

이보게 나는 그림자조차 자네 곁에 없었네

나는 오늘을, 자네는 내일을 말했네 내가 저녁을 먹는 동안 자네는 새벽을 바라봤네 등이 굽고 무릎 아픈 이제야 자네 춤을 흉내 내보네 한 줄기 추억이 후회의 가치를 무성하게 치는 날엔 벼락처럼 웃기도 하네

이보게 나는 이제 마중할 일보다 배웅할 일이 많아졌네 어느 날 내 부음이 찾아가면 모르는 척해주게 마음이 씩씩하면 푸른 힘줄 툭 툭 불거진 자네의 왼팔 한 번 내밀어주게

이보게 내 서랍에는 자네가 두고 간 악보가 아직 있네

음표들이 포도알로 영그는 이 깊은 밤, 자네는 기타를 치게 나는 춤을 춰보겠네 죽은 지도 모르고 몇 시대를 산 자가 변명의 춤을 춰보네 이 벌거벗은 몸짓에다 침을 뱉어주게

이보게,

아프지 않게 자네의 하늘에 먹구름이 남아 있다면 그건 내가 울고 가겠네